

지방소멸 가속...전남 시·군 20곳 지난해 출생아 1000명 미만

담양·강진 등 출생아 수 150명 미만 10곳...곡성군 50명도 안돼 순천 1500명·여수 1300명...광주 동구 600명, 광산구는 2300명

곡성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남 22개 자치단체의 지난해 지역별 잠정 출생아 수를 비교한 결과, 여수와 순천을 제외한 20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통계청은 100명 단위로 지난해 지역별 잠정 출생아 수를 발표했다.

전남 10개 시·군은 연간 출생아 수가 0명(0~49명) 내지 100명(50~149명)에 불과했다. 특히 곡성군의 경우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못 미치면서 통계청에서는 '0'명으로 발표했다. 곡성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의 경우 0.55명이었다.

곡성의 지난해 합계출생율 연간 출생아 수가 '0명'으로 발표된 지역은 전남에서 곡성이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도 경북 영양, 경북 울릉 등 3곳이

전보다. 곡성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130명)까지 100명을 넘었지만 이후 100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곡성군의 전체 인구 2만7070명(2023년 1월 말 기준) 중 0-9세 미만 인구는 841명에 불과했다. 곡성의 10살 미만 인구는 연령대별 인구(0-89세 이하) 분포에서도 가장 적었다.

담양·구례·보성·장흥·강진·함평·장성·진도·신안 등 9개 군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50~149명)으로 발표했다.

완도(200명)·영광(400명)·무안(500명)·영암(200명)·해남(200명)·화순(200명)·고흥(200명) 등 다른 시·군도 비슷했다.

여수·순천을 제외한 3개 시 지역도 작년 출생아 수는 1000명 미만으로, 나주(700명)·목포(800명)·광양(9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곳 가운데 작년 출생아 1000명 미

만 지역은 절반이 넘는 136곳(59.6%)이었다. 전남의 경우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인 시·군이 20곳에 달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순천은 작년 출생아가 1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1300명)가 두번째로 많았다. 광주에서는 동구(600명)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이었으며 광산구(2300명)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았다.

출생아가 줄면서 산부인과·어린이집·학교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공급도 감소하고 다시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 지자체는 2곳(곡성·구례군)이었다.

전남 지자체는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전남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전남 지자체는 2곳(곡성·구례군)이었다.

한편,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촌에서 살아가기 '보성 다향올림촌'서 시작

전남도, 전국 첫 운영...귀농·귀촌인 성공 정착 지원

월 30만원, 최장 6개월 지원

전남도가 참가자 모집이 전국에서 제일 가장 먼저 끝난 보성 다향올림촌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은 전남도가 앞서 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참가자는 모두 2154명으로 이 중 327명이 실제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해 살고 있다.

전국 9개 광역시·도 114개 시·군 130개 마을에서 500여 가구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성 다향올림촌 체험마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고 10명의 참가자를 선정해 지난 2일 살아가기 관계자와 함께

간소한 환영식을 마쳤다.

연수비를 개인당 월 30만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해 참가자가 농촌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각종 체험과 영농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또 농촌인력증거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순 체험이 아닌 참가자가 농촌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도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참가자가 일자리를 포함,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습득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귀농산악촌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블랙이글스 '국제어어쇼' 참가 응원합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애벌론 공항에서 열린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어어쇼'에 참가한 가운데 호주 현지 교민들이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응원하기 위해 애벌론 공항을 방문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이 행사장으로 찾아온 교민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확진자 격리 조정·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 공식화

정부, 방역규제 완화 이달 말 세부 로드맵 발표할 듯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에 따라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

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매우 안정적이다. 올해 1월 첫째주(1월 1-7일) 주간 일 평균 5만 9227명이었다던 전국 확진자 수는 2월 넷째주(2월 19-25일) 1만70명으로 줄었다. 광주·전남도 하루 1000명 아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와 함께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철뉴스

광주형 메세나운동 '문화동행' 본격화

'시민·기업·함께' 기부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3개 분야 추진

광주시가 문화기부 확산과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광주형 메세나 운동인 '문화동행' 3종 사업을 본격화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문화메세나인 '문화동행'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기업·함께의 기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시민 문화동행'은 민간후원금과 시비를 1대1로 확보해 신진 예술인과 전문(중견)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예술활동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매칭금을 포함한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 1인당(단체당)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 1인당(단체당)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시비를 지원한다.

시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아마이광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메세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부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기업 문화동행'은 기업후원금 1억원과 매칭금 1억원을 합산해 총 2억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걸맞은 공공 문화예술 특성과 프로젝트를 함께할 예술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계해 매력적인 문화 예술 상품을 설계하고, 오는 8월에는 투자유치설명회(IR데이) 등을 개최해 기업 후원자를 적극 모집할 계획이다.

'시민 문화동행'과 '기업 문화동행'을 결합한 기부금 매칭지원사업은 3-4월 중에 공고로 통해 후원이 필요한 예술인을 선정하고, 5월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뒤 11월까지 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중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은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체 인식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문화 창작활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우리 모두 문화예술 후원자라는 참여의식을 갖고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신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장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감을농원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력 컨설턴트 최영희 025-농번 312-3121-7676-91 (매곡주·정문초)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광산,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들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청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와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자본감소 및 주권재출공고

당 회사는 2023년 03월 02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액 200,000,000원 중 금1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액을 금5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를 5,000주로 하는 방법(무상소각)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주식회사 피에이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무릉길 174-38
대표이사 유계현

71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동 266-1920	·문 266-1960
	·복합 225-3761	·신 222-8171
	·안 산 571-7658	·오 266-7801
	·용 433-1503	·동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3-6836	·문 222-9054
	·동 부 225-6001	·중 222-9054
	·충 222-8171	
남구	·남 부 673-6836	·백 651-1833
	·봉 신 673-6836	·송 675-6805
	·진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부 372-2352
	·서광주 369-1625	·문 천 376-7153
	·치 명 376-6511	·봉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문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정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